



祝 東大開校 93周年
동해 바다, 1999. young 조
그림=최영조(본교 경주캠 미술학과 교수)

지면안내

☞ 학내 공간문제를 진단한다 8·9면



공간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찾자. 학습공간과 생활복지공간으로 크게 구분되는 대학공간은 본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양캠 각 건물별 공간 활용도를 집중 분석해 효율적인 공간활용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75분제 수업 2학기부터 시행 3면

☞ 서울캠 학생대표자 회의 성사 4면

☞ 25일부터 임시대동제 개막 5면

☞ 5월 1일 노동자 대회 6면

☞ '작가 이문열'을 만나고 10면

최근 소설 '변경'을 탈고한 이문열 작가를 만나 평론가들의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 인간적인 생활상을 스케치했다.

☞ '신지식인'을 해부한다 12면



제2건국운동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신지식인운동'. 신지식인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고 지금 이 운동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조명한다.

■ 개교 93주년 기념 송석구 총장 인터뷰

“경장(更張)정신이 필요하다”

내실있는 교육개혁...다양한 교수방법 · 학문의 특성화 · 학생선택권 보장이 중요
행정구조 개편 -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경쟁력 배양 요구돼



송석구 총장

“묵은 것은 과감히 고쳐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이나 무사안일을 극복하고, 내실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대외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동국 1백주년이 눈앞에 다가왔다. 바야흐로 동국의 전 구성원이 합심하여 '동국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본교 송석구(철학)총장은 지난 95년에 취임한 이래 99년 연 임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송석구 총장을 만나 '동국 발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 개교 93주년을 맞은 소감은.
= 한 세대가 30년임을 감안할 때 본교는 창립, 수성의 시대를 지나 경장(更張), 즉 묵은 것을 고쳐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다음 세대를 위해 경장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다. 이는 총장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교직원, 학생, 재단, 동문 등 동국의 전 구성원이 합심해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구성원 모두 주인 의식을 갖고 대화하는 93주년이 되길 기원한다.

— 현재 동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은.
=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태도가 안타깝다.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무사안일에 빠져 능동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남을 비판하는데 급급했다.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수·직원·학생 사회가 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개혁은 앞으로 보다 강도 높게 실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역이기주의와 교파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대폭 개편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 또한 '동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동국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동국정신'은 바로 불교정신이다. 동국의 잠재력 또한 불교이다. 불교를 전근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불교사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 본교의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은.
= 오는 7월부터 팀제를 기초로 한 행정구조개편이 진행된다. 팀제는 행정권위주의를 파괴하고 평등성에 입각, 창의력 계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직의 안정속에서 최대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누차 강조했듯이 학생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전면개편하고 국제적으로 우수한 교수진을 구축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산에 최첨단의 제3캠퍼스를 건립하는 일이다.



꽃파의 대화 화창한 어느날 명진관 밖으로 나와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독서심매에 빠진 학생들의 모습이 마냥 정겨워 보인다.
촬영 = 송광수 동문

—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 법인전입금 확충은 법인이 스스로 할 일이다. 재원확보는 불자, 동문들을 중심으로 발전기금 및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다.

— 본교는 이번엔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지난해 무사안일한 조직행태, 자발이 아닌 강요에 의한 개혁, 제반 학내사태로 인한 단절 등으로 인해 교육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교육개혁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 앞으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 모집단위 광역화를 둘러싸고 학내분규까지 일어난 대학이 적지않다. 본교에서도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 결국 모집단위 광역화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또한 본교는 계열별이 아닌 단과대별 모집으로 방침을 정했으므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캠의 경우 도서관 증축이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제3캠퍼스 추진과 별도로 당분간은 현 캠퍼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을 어디에 건립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올해에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에 설계를 완성,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 중앙대, 건국대, 본교, 한양대의 응원단이 '홍·우·상·사자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의향이 있다.

— 마지막으로 전 동국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나도 배우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전 동국인이 대동단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동국 발전을 이뤄야 할 것이다.

소나기

교수님께



△교수님,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다음에 REPORT 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F는 안되니 제발 D라도... (F:Fine)
 △이순 교수님! 아침에 오시기두 힘든데 화요일 1교시 강의 없애주세요~~(간청)
 △감용기 교수님!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창 교수님! 미워~임
 △교수님! 강의 평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렵다면 왜 두려우십니까?
 △김진학 교수님 타고난 약필을 우려했어. 글씨 못썼다고 학점 깎지 말아주소. -소녀-
 △백난영 교수님 말이 너무 빠르셔서 필기하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천천히 불러주세요...
 △박찬웅 교수님 '사회복지의 이해' 수업 짱이에요.
 △철희선생님 등 뒤에 조심하세요.
 △양기주 교수님 사랑해요. 학점 잘 주세요.
 △사토 센세~ 섬뜩해 알아듣게 내주세요.

여성의 권리 확보 당당한 자신만이 지킬 수 있다

캠퍼스 곳곳에 “성폭력 당하다”란 짧은 글이 붙어 있다.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면 간첩이 아닐까?) 더불어 여성 권리를 우리 자신이 지키자는 운동도 참여학생회 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 시대의 케케묵은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알게 모르게 많이 남아 있다.
 한 TV 프로에서 박모 가수(지금 공익 근무요원으로 근무중)가 ‘여성 자립’이란 주제로 짧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너무나 당당하게 또 조리있게 현실적으로 말해서 한동안 여자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 깊이 새겨둔 여자분들도 있을 것이다. (왜냐? 내가 그랬으니) 시간이 좀 지나 그 가수 말은 생각나지 않지만 여자 스스로 당당해지고 일어나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렇다. ‘여성 상위 시대’니 여자들의 권위가 많이 높아졌느니 하지만 그것은 말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성희롱’, 남자가 한때 돈 몇천만원 있으면 여자들에게 말 걸고 농담해라 했다. 그 행위는 돈만 있으면 여성들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아한 농담이 흘러 나와도 분위기상 선

배를 앞이라 뭐라 얘기도 못하고 지나간다. 그러나 적당히 분위기 깨지 않는 한도에서 선배들 기분 나쁘지 않게 일깨워 주고 지나가야 한다. (때론 심한 사람들 앞에선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무시해야 될 때도 있다!)
 여자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나 외모에 신경쓰는 이유는 각각 다르다. 남자 친구에게 예뻐 보일려고... 남자 친구 한 명 만들어 불러고... 거의 모든 여자들이 그럴 것이다. 그런데 겉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자신만큼은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담당해지려고 자신을 꾸몄으면 한다. 그래야 겉으로 풍기는 것도 한층 더 한다. 그리고 여자들 스스로 그런 자립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어야 우리 여성들의 권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
 과연 여성들의 권위를 사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높여 줄까? 페미니스트들은 앞에서 끌어 주는 것 뿐이다. 여권신장을 위해선 세상의 절반인 여자 스스로가 권위를 높여야 한다!
 김현자(자연과학대 수학교육학과)

동국발전, 제 주체의 노력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동약에서 4계절을 겪은 이라면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동약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바로 5월 개교기념일을 전후한 때일 것이다. 이처럼 개교 93주년으로 모두가 들떠있는 학내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벌어졌다.
 홍콩 여자 주간지 ASIA WEEK지가 평가한 아시아 우수대학 79개 학교중 선정된 국내 12개 대학에 까지 못하는데 이어서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3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에서 올해 탈락한 것이다. 지난 1996년 평가에서 종합1위를 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선정된 30개 대학 안에조차 들지 못한 것은 그동안 교육개혁을 선도했음을 업적으로 자부하고 있는 학교당국뿐 아니라 우리 동국대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다.
 사실 그동안 동약내에는 잠미빛 미래 상만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2006년 동국 백주년까지는 우리가 5대 사학으로 진입할 것이거나 21세기는 동양사상, 특히 불교의 세기라는 등의 그럴싸한 비전만 제시되고 어떻게 '동국발전'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했

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미래란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그 동안의 위상에서 벗어나려는 결의와 뼈를 깎는 노력 없이 '동국발전'이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제 불교계와 종단을 위해 우리가 해 줄 일은 해주고 도움을 얻을 것은 당당히 얻어와야 한다. 또 대학본부도 양적인 팽창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질적인 상승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왔다. 동국대가 동맹경화에 걸린 거대공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분석에 따른 다운사이징(Downsizing)의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신자유주의'의 열풍이 불고 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돈을 '왜' 벌고 '왜' 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는 무관심하다. 우리학교 건학이념인 불교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을 잘 살리고 동국대 구성원 각자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지금 너무나 쉽게 얘기되고 있는 '동국발전'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김진 (realjeany@hotmail.net)

TEL : 22603491-2
 (0561)7702058
 FAX :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 나우누리 PC
 ID: dg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약캠퍼 (서울캠)
 △신경향 시사토론회
 19000원~13000원
 (완전세 것:1장밖에 안 썼어요~~)
 연락처:015-984-8683
 (빨리 연락주세요~~~)
 △여성학 관련 책 싸게 살게요.018-254-8156
 △magic 카드 팔아요. 카드 진짜 많구요. 대략 3천장이상이구요.
 다 사시는 분에게 단돈 5만원에 인터하비 등등 바인더도 거저드릴 테니 제발~ 011-9595-2577

다향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생선가스(1300) 제육김치볶음(1500)
화	낙지볶음(1500) 짜장밥(1300)
수	불고기비빔밥(1500) 떡볶이떡반(1300)
목	미트볼덮밥(1500) 콩나물볶음밥(1300)
금	소고기볶음밥(1300) 얼무비빔밥(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식당 차림표

월	오징어가스(1300) 순두부김치찌개(1300) 새우볶음밥(1300) 오징어가스(1300)
화	소고기떡집(1500) 쇠어찌개(1300) 후랑크아채볶음(1500) 쇠어찌개(1300)
수	김치볶음밥(1300) 사골곰탕(1300) 얼무비빔밥(1300) 참치볶음밥(1300)
목	제육볶음(1500) 양지탕(1300) 튀김덮밥(1300) 제육볶음(1500)
금	햄볶음밥(1300) 닭도리탕(1500) 절치회덮밥(1300) 햄볶음밥(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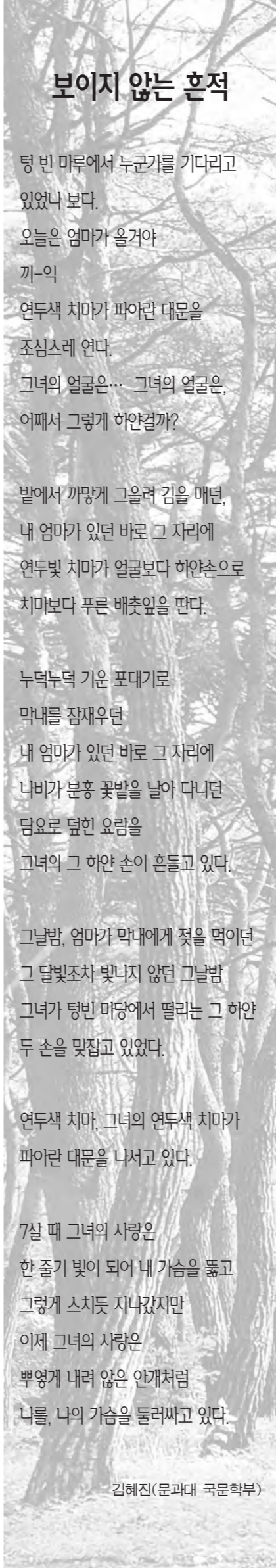
(단위:원)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기현이 오빠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어학연수도 잘 다녀오세요. -선무부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재경, 승희야! 시험보느라 고생했다.항상 변치 않는 우리 우정 끝까지 간직해 나가자. 48679!
 -사랑하는 해진(동명어인임)다이가
 혼자서서 농활을 떠나신 현석이 형. 정말 멋있어요. 그런 용기가 부럽구요. -누미르
열심히 합시다
 △컴통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같이 멋지고 함께 하는 학생회를 만들어 갑시다. -부학생회장

알립니다
 △입학 20주년을 기념하는 도시행정학과 79학년도 입학생 모임이 오는 20일(목), 19시에 본교 상록원 식당에서 스승님들을 모신 가운데 개최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KOF 잘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님 열의있는 플레이어를 원하세요? 모든 KOF 배틀팀은 저에게 일단 연락 한번 주세요. 011-9595-2577
 △불답학회 사진전 잘되길 바랍니다. -익명의 코끼리
안방길
축하합니다
 △point 주목하시라. 깜한 녀영! 생일을 축하해...
 △5월 13일은 영문과 4학년 진영이의 생일이래요. 진영아 축하해! 뼈째 자기방 사줄게(준석 saying) -윤경·준석이가
 △성욱이랑 호준이랑 5·8일 600일 이랍니다. 축하해 주던지 말던지... -신씨-
 △은실이 누나 생일 축하해요. -척한 동생이-
 △5월 15일 심효생일을 정말 축하합니다. 사랑해 친구야. -이쁜 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솔메리아 가족 여러분! 모두 공연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뿌구 선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메리아 member-
 △철학과 체육대회 연습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게임에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철학과 3학년 정신양-
열심히 합시다
 △사랑하는 '육바리말' 법우님들! 빛나는 5월을 맞이하여 힘냅시다!
 -육봉선생



보이지 않는 흔적
 텅 빈 마루에서 누군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오늘은 엄마가 올거야
 까-익
 연두색 치마가 파이란 대문을
 조심스레 연다.
 그녀의 얼굴은... 그녀의 얼굴은,
 어째서 그렇게 허안결까?
 밧에서 까맣게 그을려 김을 매던
 내 엄마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연두빛 치마가 얼골보다 허안손으로
 치마보다 푸른 배춧잎을 띤다.
 누덕누덕 기운 포대기로
 맥내를 잠재우던
 내 엄마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나비가 분홍 꽃밭을 날아 다니던
 담요로 덮힌 요람을
 그녀의 그 허안 손이 흔들고 있다.
 그날밤, 엄마가 맥내에게 젖을 먹이던
 그 달빛조차 빛나지 않던 그날밤
 그녀가 텅빈 마당에서 떨리는 그 허안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연두색 치마, 그녀의 연두색 치마가
 파이란 대문을 나서고 있다.
 7살 때 그녀의 사랑은
 한 줄기 빛이 되어 내 가슴을 뚫고
 그렇게 스치듯 지나갔지만
 이제 그녀의 사랑은
 뿌연게 내려 앉은 안개처럼
 나를, 나의 가슴을 둘러싸고 있다.
 김혜진(문과대 국문학부)

모니터링
 동대신문에 바란다
신문발행, 일관성 가져야
 동대신문이 4월 26일자와 5월 3일자 두 주에 걸쳐서 휴간되었다. 물론 사전에 정확하게 예고된 후에 휴간된 것이라 절차를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국대 전체를 아우르는 거의 유일한 매체로서 이러한 장기휴간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문은 그 정확성 못지않게 신속한 보도 또한 그 생명으로 삼는다. 특히 요즘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사회에서 정보의 전달속도는 더욱더 중요해진다. 이것은 학내의 많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학내의 많은 학우들은 알게모르게 동대신문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 이것은 기사 자체의 공신력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관성이 바로 동대신문이 학우들의 고정적인 정보획득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정기 구
 독자들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은 일간지의 공백도 담당하게 느껴짐을 알 때, 동대신문의 이러한 장기공백이 그 자신을 얼마나 소외시킬 수 있을지 가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시험기간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약은 시험기간이라고 시험외의 모든 사안이 일시중지되는 곳이 아니다. 시험기간에도 학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학우들 또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일반학우도 백안시하는 버락치기공부를 신문사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시험기간 내에 축소발행이나 최소한 한주 휴간정도로 공백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나아가 동대신문이 진정한 고급매체로 거듭나려면 기사의 질 이전에 간행의 일관성을 먼저 다져가야 하리라 생각한다.
 구윤호(불교대 불교학과)

오늘길
 성성용 (생지대 응용생물학 전공)
배움, 끝이 없다



까만머리가 빼곡히 들어찬 강의실에 희끗희끗한 머리와 양복차림을 한 노인이 어쩔없이 될 만한 교수의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뒤늦게나마 젊음을 느끼고 싶어 복학했지”라며 63세의 나이에 다시 모교로 돌아온 성성용 씨(응용생물3).
 1956년,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기에 본교에 입학한 그는 자신의 등록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다가 막상 자기 등록금은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하게 됐다.
 “부모님계신 내가 학교 잘 다니는 줄 아셨지. 등록만 안했을 뿐이지 학교는 3년 여간 교박교박 다녔거든. 그런 청강생 생활을 하던 중 정계에 있던 친구의 제의로 휴학과 함께 정치생활을 시작했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까지 해봤지”라는 말이 그의 40여년의 긴 휴학의 변을 대신하는 것 같았다.
 “생활이 바쁘다보니 벌써 60이 넘는 나이가 됐지만, 그 동안에도 마음은 항상 캠퍼스에 돌아오고 싶었다”는 말에, 학교생활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아쉬움이 항상 그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위에서는 나이도 있는데 손주 또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겠느냐는 말도 했지만, 참 어려운 선택을 용기있게 내렸다는 격려도 많이 받았어. 그 누구보다 나의 대학생활을 돕기위해 청강생을 마다하지 않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군”이라는 말이 그의 쉽지않은 학업과정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늙은이가 말쑥할 수 있는 친구도 없지만 그나마 아내가 공강시간에 같이 독서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친구 역할을 해주고 있어 동반자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라며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남편과 자식을 뒷바라지에 소홀치 않았던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같았다. 가끔 그들이 나란히 교정을 거니는 모습을 볼때면 그 다정함이 신세대 젊은이에 결코 뒤지지 않아 ‘로맨스 그레이 캠퍼스 커플’이란 별명이 잘 어울리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성성용씨는 인생의 선배로서 동약후배들에게 ‘젊음을 소중히 하라’는 한마디의 당부만 잊지 않았다.너무나 자주들은 말이지만 그의 경험의 무게 탓인지 그 한마디가 기자에게는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다.
 <신>
 sinnim@cakra.dongguk.ac.kr

- 알 림 -
 필자의 사정상 '학이의 세상보기'는 이번주 쉽니다.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복어채국(1300) 유부다시마국(1300)	잡채덮밥(1800)	캐리리이스(1500)
화	근대국(1300) 수제비국(1300)	햄박스택(1800)	돈육덮밥(1600)
수	무우맑은국(1300) 콩나물국(1300)	오징어볶음덮밥(1600)	비빔면(1800)
목	김치두부국(1300) 양배추국(1300)	돈가스(1500)	전주비빔밥(1800)
금	육개장(1300) 미역국(1300)	소고기볶음밥(1700)	하이리이스(1500)
토	유부인두국(1300)	김치볶음밥(1600)	

(단위:원)

“옛 은사님께 감사의 편지를”

학생처 편지·선물 보내기 행사 실시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은사에게 감사의 편지와 선물보내기' 행사를 실시한다.

초·중·고등학교 시절 은사님께 감사와 애정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제출한 편지와 함께 학교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소포로 발송한다.

신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학생과에서 접수하며, 수신자 주소는 반드시 재직 학교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과의 관계지키는 "통신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이 잊혀진 스승님께 편지를 보내는 것은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오는 11일 수계대법회 개최

연등점등식·제등행렬도 함께 진행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11일 오후 4시 중강당에서 교직원,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수계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계식은 오복원 이사장이 수계의 의의를 설한 후 향불로 연비를 행한다.

이와 관련해 정각원의 안중철 법사는 "이번 수계는 현대인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동국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이날 오후 6시 30분에 불상앞에서는 모두가 성불하고 화합하길 바라는 의미의 연등점등식이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교내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오는 16일 오후 6시 30분부터는 동대문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거리까지 제등행렬이 이어질 예정이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정각원이나 불교학

학생대표자회의 3년만에 성사

99년 총노선 등 의결 ... 학내 학생회 활성화 기대

99학년도 본교 학생회의 지향점과 방향 등을 논의·결정하는 '99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이하 회의)'가 지난 4월 22일 성사돼 향후 학생회 활동에 큰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96년 이후 3년만에 성사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총 재적인원 1백 22명 중 미선출 대의원 등 사교대의원을 제외한 재적인원 98명중 6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보고 △민중의례 △총학생회장 인사말 △회의의 안건 공유 및 회순통 등식이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교내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오는 16일 오후 6시 30분부터는 동대문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거리까지 제등행렬이 이어질 예정이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정각원이나 불교학

패권주의 공세에 맞서 정치적 관심과 대동단결로 자주적인 조국의 상을 청년학생으로부터 건설한다"는 총론을 바탕으로 사상, 대중, 조직운동노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과정에서 김태하(산공4) 공과대 대의원은 "전체적인 총노선의 풀이과정이 어려워 체계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각 집행국의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총학생회는 이후 당과대 운영위 등을 통해 각 집행국의 사업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총노선 토론에 이어 사무국을 비롯한 각 집행국의 인준과 그동안 진행된 학자투에 대한 평가와 이후 전망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해 이선진(수교4)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은 "그 동안의 학자투는 어느정도의 미숙한 점도 있었으나, 도서관 건립과 등록금 반환납부 등 성과도 적지않았다"며 "이후 학자투에서는 학교 식당공간문

제와 모집단위 광역화문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계속된 안건 논의에서는 △학부, 계열, 전공학생회의 명명화를 위한 총학생회칙 개정 발의 △매년 초 지급되는 학생수협제작비 인상 문제 등과 △후문 앞 일방통행 △층이집 분리수거 △정우식 동문 돕기 운동 등의 특별안건에 관한 의결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올 상반기에 진행될 대의원총회를 통해 총학생회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학생수협제작비 또한 내년부터는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특별결의의 안건으로 '노동자총파업 사수화 한총련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학생대표자 성명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한편 23일 만해광장에서 1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총학생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불교4) 총학



총학생회 출범식에 앞서 열린 전이제에서 학생들이 불사다리를 뛰어넘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생회장은 "학생대표자회의나 총학생회 출범식이 많은 학생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지 못하게 아쉽다"며 "학생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의한 율해의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대중과 함께 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의 성사와 출범식을 계기로 침체된 학내 학생회운동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유철주 기자
cowsow@cakra.dongguk.ac.kr

“연등에 사연을 담으세요”

여학생부처 연등만들기 공모

여학생부처(처장=임둔희·사학)는 부처님 오신날 맞이 '연등만들기와 사연(축원) 공모전'을 실시한다. 연등과 사연(축원)으로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이번 행사는 전 동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등만들기와 사연(축원) 공모에 동시 응모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계산관 1층에

서 접수한다.

'가장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연등상'과 '가장 감동적인 사연(축원)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각각 1등·30만원, 2등·10만원, 3등·5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3시 계산관 앞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출품작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계산관 2층에서 전시된다.

사회봉사협의회 등 학술회의 활발

오는 13일 불문연 세미나 열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회장=김덕중 아주대학교 총장)는 지난 4일 본교 예술극장에서 김병수 연세대 총장, 이재정 성공회대 총장 등 30개 학교 총·학장을 비롯한 1백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9학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98학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99학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선출이 있었다.

또한 불교문화연구원(원장=목정배·불교학)은 오는 13일 '2000년대를 여는 한국불교'를 주제로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편, 한독경상학회(회장=차수련·경영학)와 본교 경제경영연구원 주최로 지난 달 24일 본교 상록원 교직원 식당에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문제'를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가 개최됐다.

생협, 2차 정기 대의원총회 열려

학생대표, 다량관 학생식당 존속 필요성 제기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 2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 4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총 재적대의원 63명중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신입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인준과 이후 사업계획에 관한 여러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는 다량관 식당 공간 폐쇄와 관련한 식당공간 마련문제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9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98년도 이익 잉여금 처분안, 9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승인됐다.

이날 총회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다량관 학생식당 폐쇄문제와 관련해 박찬정(수교4) 학생복지위원장은 "식당이용인원인 동국관 학생식당 보수공사 전보다 8백여명이 증가했음에도 공사 이후 좌석수는 오히려 51석이 줄었다"며 다량관 학생식당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

이에 대해 생협에서는 이번 주중 긴급이사회를 열어 다량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분야별 우수교원 선발 시상

홍기삼 교수 등 5인 영예

연구교류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 연구부는 지난 8일 개교기념일을 맞이해 교원들의 연구의욕 고취와 연구업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수교원을 5명을 선발, 시상했다.

이번에 선발된 교원에게는 3백만원의 연구장려금이 지급되며 2000학년도에 한하여 책임강의시간 중 3시간을 감감해 준다. 또한 각종 연구비 및 연구기자재 등이 우선 지급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선발된 우수교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문계열-서울캠 홍기삼(국문

학)교수 △자연계열-서울캠 김태원(물리학)교수 △체능계열-서울캠 오원배(미술학)교수 △사회계열-경주캠 이충기(관광경영학)교수 △의학계열-경주캠 김철호(한의학)교수

또한 본교 재직 교수 중 98학년도 계열별 외부 연구비 수주 우수자 선정 및 시상이 지난 4월 29일 총장실에서 진행됐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문계열-서울캠 송재운(윤리문화학) 교수 △사회계열-경주캠 주재훈(정보산업학) 교수 △자연계열-서울캠 신현소(화학공학) 교수 △의학계열-경주캠 정준호(의학) 교수

축구·야구 춘계대회 출전

축구는 첫승, 오늘 각각 경기 출전

본교 야구부가 지난 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동대문 구장에서 열리고 있는 99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 출전하고 있다. 전국에서 출전한 23개팀이 4개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전으로 진행되는 이번대회에서 야구부는 지난 6일 건국대와 경기에서 7대 11로 아깝게 패해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더욱 분발이 요구되는데 오늘(10일)

단국대와 경기 시작으로 13일 현대대, 17일 연세대, 20일에는 한양대와 나머지 예선 경기를 치르게 된다. 축구부는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99전국대학축구연맹전에 출전중이다. 이미 지난 8일 치뤘던 동아대와 경기에서는 3대1로 승리했으며 오늘(10일)은 경성대, 12일 제주대, 14일 서울대와 경기를 치른다.

총학, 제천에서 농활 진행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는 지난 7일부터 9일간 충북 제천으로 농활을 다녀왔다.

문과대, 공과대, 사범대를 비롯한 8개 단과대 1백20여명이 다녀온 이번 농활은 출발에 앞서 '농업비리척결과 능가부채해결, 한총련 이

적규정 철폐와 IMF 미국반대'라는 가치를 내걸고 불상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후 제천역에서 제천농민회와 함께 농협비리 척결을 위한 집회를 갖고 각 마을 별로 흩어졌으며 8일에는 농민들과 함께 어버이날 행사를 마쳤다.

취업대비 인적성검사 실시

최근 기업의 채용기준을 보면 개인의 품성을 중요시하여 인적성 검사의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성검사는 개발사에 따라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을 접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재학생의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취업대비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검사종류 : 매경적무적성검사
2. 검사일시 및 장소
 - 1회 : 5월 24일(월) 오후 3시 (동국관 L 501)
 - 2회 : 5월 24일(월) 오후 6시 (동국관 L 501)
 - 3회 : 5월 25일(화) 오후 3시 (동국관 L 401)
3. 비 용 : 1-3학년 3,000원(4학년 2,500원)

검사해석 및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상담센터 및 졸업준비에서 지원합니다.
4. 접수일자 : 5월 7일(금) - 5월 21일(금)
 - 3, 4학년은 과대표를 통하여 졸업준비위원회로 일괄접수해 주십시오
 - 개별접수는 학생상담센터나 졸업준비위원회로 해주십시오

*문의 : 학생생활상담센터(구내전화 3506) · 졸업준비위원회(구내전화 3613)

*검사에 앞서 취업인적성검사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신청서 검사일과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상담센터·졸업준비위원회

‘동국참사람 인증’ 교육 제3기생 모집

1. 「동국참사람 인증」제란?

본교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특성화 교육을 시킨 후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학교가 인증서를 수여하여 보증하는 제도로서 학생 본인에게는 올바른 가치관과 덕성을 함양케 하고 사회에서는 동국대학교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본교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국제화, 정보화에 발맞추고 21세기의 고도 정보화, 세계화 사회를 선도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최고의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사회에 배출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2. 교육과정 : 인성교육(1주간 공동체생활), 사회봉사활동, 외국어(영어)교육, 컴퓨터교육(세부 교육 내용은 상담 시 안내)
 3. 교육기간 : 99년 9월 ~ 2000년 8월 (1년간), 학기 중 교육(평일 오후 6시부터 2시간씩 수업)
 4. 모집인원 : 50명
 5. 전형일정
 -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5. 3(월)-5. 13(목) 09:00-17:00
 - 나) 원서접수장소 : 취업과 취업자료실
 - 다) 면접일시 및 장소 : 99. 5. 15(토) 10:00~ , A103강의실
 6. 합격자 발표 : 99. 5. 20(목) 취업과 게시판 공고
 7. 응시자격
 - 가) 99학년도 3학년 재학생(5학기 등록)으로서 평점평균 B 이상인 자로서
 - 나)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다) 2000년도 하반기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8. 제출서류
 -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취업과 교부)
 - 나)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다) 성적증명서 1부
 - 라) 주민등록초본 1통(남학생에 한함)
 9.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서류전형시 외국어(TOEIC, TOFEL)성적, 컴퓨터관련자격증, 봉사활동실적 등 제출자는 우대함.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학생처 취업과(본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할 것
- ☎2260-3054~5(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서울캠 학생처

99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1. 교육대상
 - 가) 기본훈련 8시간 : 전역 2~7년차 예비군(92~97년 전역자)
 - 나) 소집점검 4시간 : 전역 1년차 예비군(98년도 전역자)
2. 교육대상 제외자
 - 가) 99년도 전역자
 - 나) 91, 12, 31일 이전 전역자(전역 8년차 이상 예비군)
3. 교육일정 / 장소

5. 10(월)	5. 11(화)	5. 12(수)	5. 13(목)	5. 14(금)
공과대 (화공과, 정보산업대 제외)	공과대 회공과, 정보산업대, 경성대 사회과학대	이부대 생명자원과, 의과대 사회과학대	대학원 불교대 교직원	이과대 법과대 예술대 교직원

 - 가) 기본훈련 8시간 대상자(전역 2~7년차) / 노교산 훈련장(219연대)
 - 나) 소집점검 4시간 대상자(전역 1년차) / 본교 중강당

5. 17(월) 오전	5. 17(월) 오후
공과대, 정보산업대, 문과대, 법과대, 경성대	불교대, 이과대, 사과대, 생과대, 사범대, 예술대, 이부대, 대학원, 교직원
4. 복 장 : 예비군복(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장, 허리띠)
5. 휴대품 : 신분증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 분실자는 예비군 연대에서 편성카드 복사
6. 유의 사항
 - 가) 구과반 전철역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300m 지점에 서를 버스대기(06:40~07:20 까지만 운행)
 - 나) 08:00 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 불가(위병소 통제)
 - 다) 예비군복중 1가지만 미착용해도 입소불가
 - 라) 해당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시 예비군 연대본부에 사전 신고하여 일정 조정.
 - * 예비군 연대본부 연락처 : ☎ 2260-3072~3

서울캠 예비군 연대

2000년도 졸업 앨범 촬영 일정표

5월 10일(월)	5월 11일(화)	5월 12일(수)	5월 13일(목)	5월 14일(금)
국어교육	물리	사학	수학	건축공학
지리교육	산림자원	체육교육	경찰행정	농업경제
수학교육	불교	행정	회화	국민윤리
연극영화	컴퓨터공학	화학공학	경제(주.야)	회계(주.야)
가정교육		영어독문	정치외교	응용생물
		영어일본		
5월 17일(월)	5월 18일(화)	5월 19일(수)	5월 20일(목)	5월 21일(금)
토목공학	미술			대동제
식품공학	사회			
경영(주.야)	복합(야)			대동제
	반도체(야)			
	역사교육			
5월 24일(월)	5월 25일(화)	5월 26일(수)	5월 27일(목)	5월 28일(금)
기계공학	전자공학	통계	전기공학	산업공학
국어국문	신학	법학	철학	교육학
전산통계(야)	정보관리(주.야)	신방(야)	영어영문(주.야)	무역학(주.야)
인도철학	식물지연	광고학(야)		

* 중문(야)는 5월 29일(토) 1시

●유의사항

1. 각 과대표는 교수님에게 미리 일정을 알려 주십시오.
2. 내년 2월에 졸업하게 되는 분들은 필히 사진 촬영을 하십시오(특히 휴학생).
3. 비가 오는 날이라도 학사복 촬영은 실시하오니 사진 촬영 준비를 하십시오(단체 및 야외 프로파일 사진은 일정이 연기됨).
4. 촬영 기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재촬영 기간에 촬영할(개인 프로파일사진만).

(일정은 추후 공고)

서울캠 졸업준비위원회

99 입학대동제 25일부터 막 올라

대동제 기간중 차량 출입통제, 대운동장에 주차해야

지난 7일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이상섭·불교4 이하 중은위)가 △99학년도 입학 대동제(이하 대동제)사업 계획 △교육개혁추진(이하 교개투) 결과보고 및 방학 △5.19집중 행등의 날 등을 안건으로 개최했다.

이날 중은위에서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질 99학년도 입학 대동제 준비과정 및 방법 등의 기초기획안 설명이 있었고, 학내 주차문제와 공간배치문제, 학부학생회 주막 추천권부여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대동제 기간중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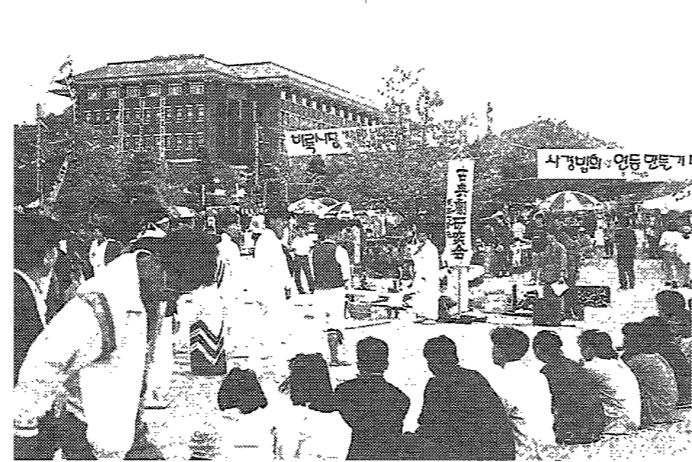
대동제와 관련해 이상섭 총학생회장은 "지난 7일 가진 교무처장 면담에서 교직원 및 학생, 일반인 차량의 학교출입 통제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내일(11일) 열린 교무회의에 이 사항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책화할 것"이라며, 또한 "규약대와 자원봉사자, 각 단계 및

자치기구의 문화·기회부장은 차량 통제 캠페인, 불법 주차운영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제 실시 이후 해마다 문제가 되었던 학부학생회 주막 추천권부여 보장 역시 이날 논의되었으나, 학과생과 학부생들의 분열의 우려와 공간부족의 문제를 고려해 중은위 석상에서는 학부 학생회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점에 대해 각 단계 회장들은 학부 학생회와 합의를 유도하고, 오늘(10일) 대동제 실무자 회의를 갖고 했다.

한편, 총여학생회(회장=전선희·국어국문4)에서는 최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은위 위원들에게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이상섭 총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의 학칙제정운동이 현재 학내에서 진행중인 교개투와 같은 맥



락이니 만큼 함께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에 성폭력 근절에 관한 학칙제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교개투 결과보고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지난 두달 동안의 교개투 일정은 대중적 실천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물은 얻지 못했으나 총학생회 주축으로 오는 19일 집중 행등의 날을 개최해 지난 두달동안 진행되어온 교개투를 반성하고, 2

학기 교개투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보고했다.

이날 중은위에서 논의된 대동제 기간중 차량 진입금지 및 불법 주차 방지 단속은 매년 대동제 때마다 거론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번 대동제에서는 학교측과 학생측의 더 적극적인 개혁 의식이 요구된다.

김미영 기자 dg19810273@mail.dongguk.ac.kr

내일(11일), 대동제 주막·상점 추첨

각 단계 행사 세부기획안 오늘까지 제출

총학생회(회장=이상섭·불교4)는 각 단계 회장 및 집행부, 각 학과 대동제 실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9일 목요일에서 '99학년도 입학 대동제 열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총학생회 문화·체육국장, 상경대 경영학과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인문대 정책부장이 배심원으로 참석해 발제,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공간배치 및 활동방안 △규약대 구성 △불법 주차 단속 △지역사회의와 연대행사 등이다.

기타내용으로는 대동제 기간중 학부제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학내 자체 동아리 공연을 더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측에서는 공청회 때 제시된 안건들을 바탕으로 다시 논의했고 지난 6일 총학생회 심의재 문화·체육국장은 각

내일(11일), 대동제 주막·상점 추첨

단계 대동제 실무 대표자 연석회의를 마련해 △규약대·해법대전위원회로 하되 복장은 총학생회에서 관리 △학내 차량 진입금지·세칙을 작성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통제 △자외선 방사 학생들을 구성해 각종 캠페인 운동 실시 등 논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대동제 기초기획안 발표와 관련해 문화·체육국장은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늘(10일) 2차 회의를 발표할 예정이고, 내일(11일) 목요일에서 주막, 분식, 상점추첨을 실시하니 각 단계는 행사 세부 기획안을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매체실, 매달 영화상영

도서관(관장=이갑득·화학) 교육매체실에서는 지난 3일 '일글리서 페이션트 1·2'를 시작으로 매달 오후 3시부터 영화상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5월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0·12·14일- 더 록 △17·19·21일- 리틀 부다 △24·26·28일- 처녀들의 저녁식사 △31일, 6월 2·4일- 울리브 나무사이로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매체실의 한 관계자는 "매달 영화상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고실은 비디오는 전자우편이나 교육매체실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대원, 총장특별 강연회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영중·행정학)은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B(진흥관)101 강의실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회를 가진다.

"동서사상의 윤리적 이해"란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강연회는 송석구 총장의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중 교학계장은 "1교시 강의록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니 당일 수업이 없는 학생들도 필히 참석하면 한다"고 말했다.

부처님 오신날 기념 학술 강연회 개최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윤효진·불교학)추진, 국악과 주관으로 오는 13일 오후 3시 원효관 소강당 II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처님 오신날 기념 학술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회는 '21세기 불교음악의 전망'이란 주제로 국립국악관현악 단장이자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박범훈 교수가 강연한다.

이와 관련해 윤소희(국악과)교수는 "불교음악의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시대를 맞아 창작 친불가의 현대적 고찰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졸업앨범업자선정 논란 마무리 앨범대 조정 ... 2천원 내린 5만9천원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이시형·법4 이하 졸업위)는 지난달 30일 2천년도 졸업앨범 업자선정을 두고 총대의원회(의장=이상해·회계4)를 비롯한 몇몇 단과대회장이 참가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명성사진관과 계약을 체결했다.

학내를 떠들썩하게했던 졸업앨범업자선정 의혹을 두고 총대의원회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졸업위를 특별감사한 결과 경고 2개와 지시사항 1개를 내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고1=정기총회에서 업자선정방법을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졸업준비위원의 반으로 결정된 점 △경고2=자료수집 미비(업체중심이 아닌 타대학을 중심으로 시장조사 실시한 점) △지시=졸업위 사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4주내로 4학년 30% 이상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 등이다.

총대는 지난달 26일 동아리연합회에서 졸업위 집행부를 제외한 졸업준비위원 41명의 정족수 중 22명이 참석해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으며, 본교 졸업앨범을 명성에게 맡기는 투표에서 17명이 찬성해 명성사진관과 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9일 열린 앨범업자 선정투표에서 명성은 앨범단가를 6만 1천원으로 제시해 결정권자였던 감사결과 발표 당일 명성측은 2천원 내린 5만 9천

호전무대

오빠 달려!?

O... '파라파라파라반~' 요즘 서울캠 학내에 폭주족(?)들이 부쩍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일단이런 학생들이 걸어다니기에도 넓지 않은 캠퍼스에서, 귀를 울리는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오토바이로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쇼를 한다고.

게다가 그들은 어떠한 눈총에도 굴하지 않는 철면피니.

이에 한 학우 오토바이 소리에 흠칫하며 말, "폭주족보고 놀란 가슴, 배탈죽보고도 놀란다?!"

번지없는 강의실(?)

O...지난 달 30일 저녁 경주캠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컴퓨터 필기시험 강의실 배경의 언터레 공교로 인해 학생들의 원망이 끊어질 않았다.

내용인즉, 강의실 및 인원수 배정이 안됐던 바와 달리 강의실을 찾아 해내는 학우들의 이들로 북새통을 이루는가 하면 시험시간이 지체되기까지 했다고.

이에 한 학우 왈 "천개의 램프가 켜지면 강의실이 나타나리라(?)"

방학(?)

O...식당 물품들의 어이없는 방학(?)

요즘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에 있는 물김, 장반, 수저, 의자커버 등이 일부 비양심적인 학우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는데.

알아본즉, 식당 물품들이 동아리 방방만 아니라 학생회관 복도에 나뒹구는가 하면 심지어는 학생들의 자취방에서까지 발견되고 있다고. 이에 본 회진무대자 왈 "동국인 이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영웅본색(?)

O...구조조정으로 계열사 정리를 단행하던 재벌들이 다시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삼성과 LG는 데이콤 인수에, 현대와 삼성, SK는 하나로 통신, 포항제철과 삼성은 신세기 통신에 포석을 들이는 등 드디어 숨겨진 본색을 드러내고 있으니.

부실한 계열사는 정리하고 일짜 배기 기업은 인수하니 이것이 바로 일거양득.

이에 본 회진무대자 한마디 "구조조정은 군살 빼고, 기업 인수로 뭉개 구구다!!"



만남... 지난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경주캠 북아원에서 경주시 어린이날 행사 준비위원들이 풍물과 공연을 보여주고 있다. 김미영 기자 dg19810273@mail.dongguk.ac.kr

오는 12일부터 금장제 오픈하우스

금장생활관(관장=김복순·국사학)은 오는 12일, 13일 양일간 생활관 남·여 동에서 금장제를 개최한다.

다시 시작되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12일= 동아리 공연(버라이어티, 세븐클래스, 화랑선무부, 사회체육 에어로빅, 유로즈 등), 예쁜방 선발대회 △13일= 오프닝, 관장 인사말, 자치위원 및 내빈소개, 최고의 남·녀관생 선발대회 등의 순으로 치러진다.

단체 어울림 한마당

인문대·법정대·야총 체육대회 개최

인문대... 지난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대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가진다.

오늘(10일)치러질 경기일정을 보면 △축구는-일문·철학, 한문·영문 △남야구는-중문·국문, 철학·미술 △농구는-중문·영문, 철학·미술 △피구는-일문·사북, 한문·미술 △야구는-영문·국문, 일문·철학 △축구는-미술·철학 등이며, 이날 우승한 팀은 12일 준결승을 치른다.

법정대... 오늘(1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1일 대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가진다.

오늘 5시부터 동아리공연 실시되는 전야제는 동아리공연(세븐클래스)과 법정인 가요제, 이벤트 행사 등으로 진행되며, 11일 경기는 축구·농구·발야구·씨름·성피구·줄다리기 등 6종목이 국제관계, 행

'전 동국인 점등식 및 제등행렬'

- 날짜 : 5월 12일
- 시간 : 6시
- 장소 : 녹야원 중심의 교내 일원
- 대상 : 전 동국인 및 일반 불자
- 식순 : 식전-사물놀이 국악과 공연 타종 개회사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6법공양 불축사 축사 점등 발원문
- 점등 및 제등 행렬 사물서연 산화기 폐회사

경주캠 정각원장

총여학생 회장 인터뷰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 학원 민주주의 실현

총여학생회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연서를 비롯 선전전을 학내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여학생회 전선희(국어국문 4)회장을 만나 성폭력 학칙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았다.

-성폭력 학칙제정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최근 몇 년 사이 대학 내 성폭력과 관련해 서울시립대, 동아대 등에서의 성폭력 학칙제정에 관심을 기울이던 중 지난 4월 23일 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같은 과 동기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따라서 성폭력에 관한 신고전화 접수나 경주지역의 YWCA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동대생의 상당수가 성폭력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계기로 학내내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성폭력의 피해정도, 처벌, 그 이후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즉 학칙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폭력 학칙제정은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까지도 포함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되고 적용, 제정됨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학원사회에서 성적 학습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근절에 관한 학칙제정은 공동체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규범을 스스로 만

드는 자치규약으로서의 학칙 제정, 나아가서는 대학내 적극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칙제정과 관련해 학내 심전전은

=우선 성폭력에 관한 학칙제정의 당위성을 알려내고, 피해학생의 진상규명,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을 위해 자보화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학내에 비밀비재한 성폭력 건수, 피해사례 등을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킴이 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칙제정을 위한 연서 및 교육발송장을 통해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학칙제정과 관련해 학교당국과의 접촉을 위해 먼저 학생처장과 면담을 할 계획 이다.

-선전 작업을 하면서 구성원들의 반응이나 여론이 있다면

=혼자서 1만명만 싸우는 그런 외로움을 느꼈다. 며칠동안 밤샘 작업을 하고 심지어 결석을 하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고 더욱이 여학우들이 적극적이지 못해 아쉬웠다.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인데.

-성폭력 학칙제정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며칠전 그 피해 여학우를 직접 만나봤다. 피해사건 이후 두달이 지나 현재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혼자 있기를 두려워했다. "학칙제정이 안되면 가해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요"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말하는 그 여학우의 눈을 보면서 성폭력 학칙제정은 내가 꼭 이루어야 하겠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했다.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 어느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른다. 피해자가 말하지 않고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공감에서 스텝 없이 말해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여학생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성폭력 근절에 관한 학칙제정을 제안하며 이에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동참해 줬으면 한다.

정희정 기자 dg19711782@mail.dongguk.ac.kr



축협노동조합에서 제작한 '농림부가 축협을 죽인다'는 의미의 소머리 모형.



"우리도 일할 권리가 있다" 이들은 휠체어를 타고도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행진하며 요구사항을 알렸다.



벡타이를 뺀다고 생존권이 보장된 건 아니다. 사무노련 소속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가족을 동반하고 나온 노동자들이 상당 수 눈에 띄었다.



이날 집회에는 3만5천여명이 참가해 서울역광장을 가득 메웠다.



집회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5대 재벌총수의 상여와 장례행렬.

“전민중을 위한 투쟁으로”

노동자대회, 지난 1일 서울역서 개최

지난 1일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주당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 등을 외치며 1백9주년 기념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유보와 총파업의 선봉대를 이끌었던 지하철 노조의 파업 철회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지도부의 입지가 크게 약화된 시기에 치러진 이날 노동자 대회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서울지하철노조 등 7개 산하 단체들을 주축으로 탐골공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사전 결의대회를 가진 뒤 오후 2시30분에 3만5천 여명의 노동자를 학생, 시민이 모인 가운데 ‘노동계 총파업’이라는 기치 아래 치러졌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보장 △산업자와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체협약 안정과 산업별교섭체제 보장 등의 ‘4대 요구안’을 관철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거듭 밝혔다.

또한 ‘대정부 메시지’를 통해 “지난 4월 공공연맹 파업투쟁을 필두로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통해 구조조정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나갔다”며 “5월 총력투쟁의 초점은 구속, 수배, 면직, 언론 왜곡 보도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김대중(金大中) 정부를 직접 겨냥하는 대정부투쟁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본 대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여경들과 교통경찰들의 안내를 받으며 평화적으로 명동성당까지

가 두행진을 벌였다. 특히 5대 재벌 총수의 장례행렬을 묘사한 차량과 ‘정리해고·구조조정 철폐’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단두대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을 비롯한 각 단체 지도부와 금속산업 연맹, 공공연맹, 의료노조 등의 각 단체 노조원들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학생들은 거리를 메운 채 명동성당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오후 6시 명동성당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이번 노동자 대회에 대해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지하철노조 파업철회이후 주축했던 투쟁분위기를 고조

민주노총 4대 요구안 관철 5월투쟁의 발판

의 파업을 중심으로 산하 17개 연맹이 참여하는 5월 총파업 및 15일 민중대회 개최 등을 힘차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연맹은 지난 3일 오후 석치순 서울지하철 노조 위원장 주재로 7개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산하 1백9개 노조가 오는 14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서울지하철 노조는 지난 7일에 야간 총회를 열어 재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지하철 노조와 한동노조의 파업 철회로 투쟁의 열기가 가리웠던 가운데 취재진 이번 조치로 인해 5월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전 민중적 투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동약로 아름다운 봉사

“치료 가능성이 있는데도 수술비가 없어서 이 아이를 포기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문화방송이 주최, 백혈병에 걸린 아동을 돕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에서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가까머리를 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뒤이어 “장애자나 아동 의료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일본이 85년도에 지원한 이후 한 국가 보조금보다도 적고 복지정책 또한 낙후되었다”는 의료전문가의 말이 전해진다.

경제난으로 국가의 의료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또한 주춤해지고, 기업들의 자선기금이 줄어 백혈병이나 심장병 등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자들이 치료를 포기해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와는 다르게 본교에는 훈훈한 애정이 넘쳐나고 있다. 바로 참사람봉사단의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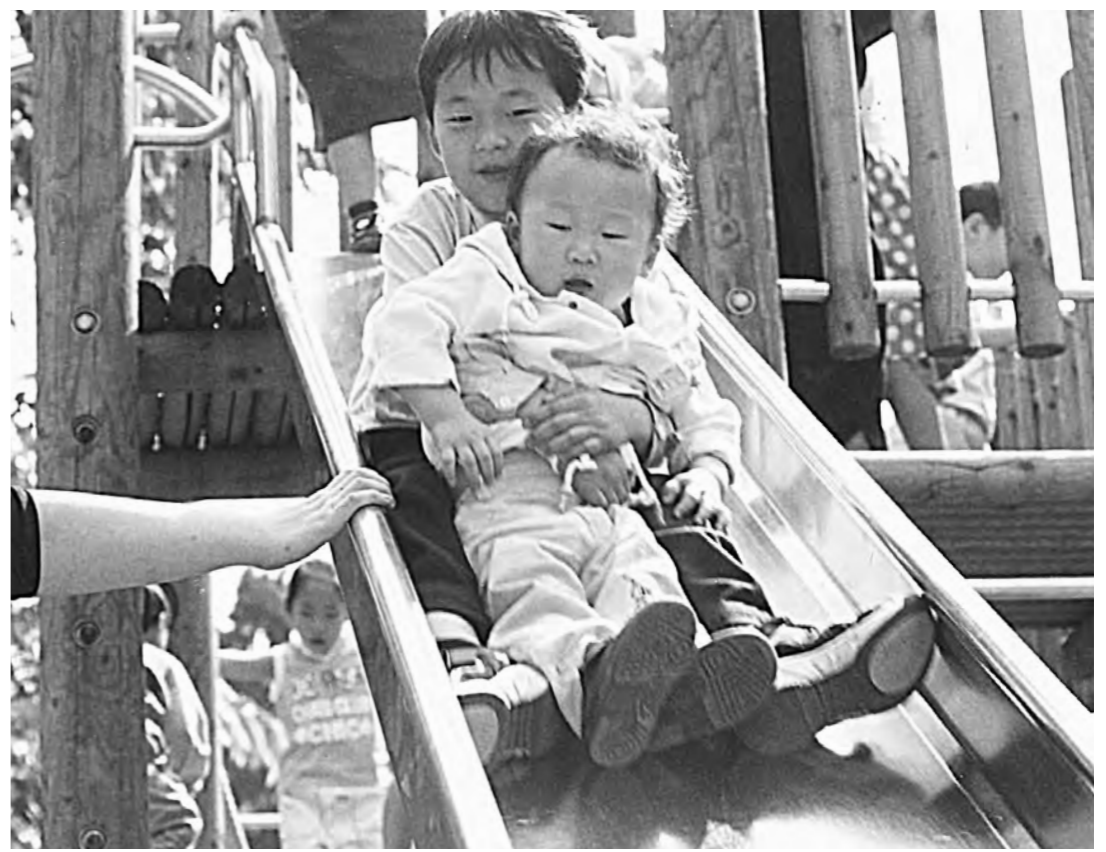
“대학생이 아무리 예비실업자라고 불리워져도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 마음까지 가난해서는 안되지요”

참사람봉사단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수유리에 위치한 국립재활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7일),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나이가 지긋한 환자들에게 아들, 딸 또래의 학생들이 찾아왔다. 그들을 보며 활짝 미소짓는 환자와 그들에게 마음만큼이나 따뜻한 밥을 떠주는 학생들의 모습은 ‘아름답다’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부족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대학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다.

이미숙 기자 ionia@cakra.dongguk.ac.kr



5월의 동심... 어린이들의 웃음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어느덧 푸르러진다. 77번째 어버이날을 맞은 지난 5월, 장충단 공원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봄볕에 그늘리는 줄도 모르고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동강현지탐방

“동강은 흘러야 한다”

4월 17일, ‘동강 가는 날’이라고 수첩에 적혀 있다. 동강에 관한 자료와 카메라, 그리고 간단한 여행 장비를 챙겨 집을 나섰다.

본교 사회문제세미나(담당 김익기 교수) 과목시간에 환경문제 팀에서 동강담문제를 다루는데, 직접 현장으로 답사를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교 동굴탐험 연구회 회원으로 동강 주변의 동굴탐사를 위해 40명 이상이나 이곳에 왔었다는 ‘프로’가이드 박용식군(사회4) 때문인지 이번 답사에는 고려대 사회학과 학생과 교수도 동행했다.

다행히도 날씨는 화창했다. 동국과 앞으로 낮익은 얼굴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버스에 오를 30여명의 학생들은 미리 나누어준 ‘동강문제발표문’을 훑어본다. ‘동강-과연 두 동강이 내려는가’라는 제목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번에 나타내준다. 강원도 영월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환경문제 팀의 발표가 있었다. 동강담을 왜 건설하려고 하는지, 왜 건설되면 안 되는지, 가치갈등론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강 영월담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생태계 보전이나, 용수확보와 홍수예방이냐’라는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수도권에 물 부족과 홍수조절을 위해 담건설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환경·시민단체는 담 건설시 동강유역 환경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동강 주변의 지질이 석회암지대이고, 지진 다발지역이라서 담이 과연 안전하겠는지는 문제도 함께 제기한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시간이 넘어서야 동강에 다다랐다. ‘영월담 결사반대’ ‘동강은 흘러야 한다’ ‘위험한 영월담, 목숨바쳐 저지하자’ 등의 동강담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강가에는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

에 많이 띈다. 이곳은 주로 농농사를 하지만 이래저산업은 주민들의 수입원중 하나라고 한다.

1시간 가량 걸어서 만지나루터라는 곳에 도착했다. 나루터라는 이름답게 한 노인이 모터를 단 신식(?) 나룻배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있었다. 산 등성이에는 수물예정지역임을 알리는 빨간색 표지판이 걸려있다. 학생들은 흰 자갈밭에 앉아 동강담 건설 찬·반을 놓고 토론을 했다. 반대쪽에 앉은 학생이 찬성 쪽에 앉은 학생들보다 2배이상 많았다. 찬성입장의 학생이 물 수급능력을 높이기 위해 동강담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반대입장의 학생은 “정부주도의 이런 정책들이 주민생활이나 생태학적 가치에 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공급 우선적인 사고를 버리고 수요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생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공동체파괴까지 이어질 수 있음으로 환경문제를 볼 때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간의 열띤 토론이 계속 되는 사이에 날이 어둡어졌다. 서울이라면 아직도 대낮일 시간임에도 이곳에서는 어둠이 조금씩 깔리기 시작했다. 토론을 마친 후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내가 찬성 쪽에 앉고 싶어서 앉은 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너무 없으니가 활발한 토론을 위해 서지”라고 해 한바탕 웃었다.

민박집은 동강의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문화마을에 있었다. 모두 9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 문화마을도 동강담이 건설될 경우 수몰될 것이라고 한다. “보상금을 얼마를 주든 상관없어. 그냥 이곳에서 계속 농사짓고 살고 싶지”라고 민박집 주인 아저씨는 한숨을 지으며 “그런데 이곳은 땅값도 싸고, 주민들도 별로 없어서 수자원공사 쪽에서 볼 때는 최적의 조건이지”라고 토로했다. 민박집으로 가는 길은 험준했다.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인데다가 길도 좁아서 버스가 들어갈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일행은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

을 4개의 랜턴에 의지해 1시간 가까이 걸어가야만 했다. 이 곳 사람들에게 자가용이 왜 필수품인지 알 것 같다. 민박집은 강 건너에 있었다. 보트를 타야만 건널 수 있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오지마을 바로 그 곳이었다. 늦은 밤에 도착한 일행은 동강에서의 첫날밤이자 마지막 날 밤을 보냈다. 유난히도 별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행은 문화마을을 나와 서울로 향했다. 작지만 아름다운 강, 동강. 험준한 산세와 협곡을 휘돌아 흐르는 동강. 동강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다. 정선아리랑의 원류라고 하는 이유라지, 단종의 혼이 신선처럼 살고 싶어하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줄지어 진언했다는 전설이 깃든 어리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룡동굴과 비오리, 어름치, 흰목물떼새 등 각종 희귀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 ‘동강은 흘러야 한다’라는 현수막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박영실 기자 youngsp@cakra.dongguk.ac.kr



문화마을에서 바라본 동강의 수려한 풍경



문화마을의 어린이들. 하지만 이곳이 수몰된다면 이 아이들의 고향은...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한다.

지난 7일 자통협 결성

민간통일역량 결집 기대



21세기 신한국을 창조하는데 앞장설 통일운동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설립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가칭 자통협)의 결성식이 지난 7일 오후 4시에 기독교 회관 2층에서 치러졌다.

지난 3월 9일 향린 교회에서 열린 1차 전체 대표자모임을 계기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자통협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민주노총,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국민승리 21, 전국연합 등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선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단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준비가 이뤄졌다.

이날 결성식 대회사를 한 자통협 상임의장 홍근수 목사는 “분단된 조국 현실과 흡수통일 정책, 언론통제, 선별교류정책 등을 추구하는 현 정권에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통일정책이 부재한 현 정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이버 통일 대통령이냐”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통일이라는 담판과제를 적극적으로 맞서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가 되자”며 자통협의 결성의의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했다.

자통협은 △연방제통일 △주한미군철수 △국보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양심수석방 △민간통일운동보장 등을 주요 행동 지침으로 삼아서 △8·15 통일대추전 △분리안 목사 추모기념행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촛불 대행진 △전민족 정당단체연석회의 소집 사업 △국가보안법 철폐사업 등 통일에 관한 주요사업을 추진해 민간 통일역량을 결집하는데 하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재벌개혁 어디로 가야하나? **논단**

기업지배구조를 독립·책임경영으로 바꾸자

현 정부는 출범이후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강력한 여론의 압력과 IMF프로그램에 의한 외압에 힘입어 재벌개혁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법제화하여 왔다. 그리하여 부채비율의 감소,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결합채무제도의 작성, 재벌간 빅딜(big deal)을 비롯하여 대주주의 실질적 책임, 소액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제 등 크고 작은 제도적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빅딜위주의 재벌개혁

이러한 변화는 과거정권들에 견주어볼 때 재벌의 변화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빅딜 외에 주요한 노력들이 주로 IMF의 요구에 의한 외압에 근거하고 있고 그 외에는 형식적이어서 구조개혁방안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빅딜을 재벌개혁의 주요내용으로 삼은 것은 재벌개혁의 출발이 잘못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재벌간 빅딜의 문제는 업종전문화나 기업의 거대규모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확보 논리에 입각한 주장이지만, 그러나 이는 시장원리에 벗어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의

문의 여지가 크다. 국민경제적으로 특정산업의 시장독점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우려되며, 비효율성의 문제와 규모의 불경제성의 문제, 그리고 부실누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벌의 입장에서도 각각 주력업종의 선정문제, 기업평가의 차이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유구조가 변화돼야

재벌개혁의 본질적 과제는 빅딜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에 있다. 그것은 소유구조의 개혁과 경영지배구조의 개혁을 의미한다.

소유구조의 문제는 대주주 개인 및 그 혈족에 의한 소유와 계열기업의 소유로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전자인 개인의 소유 문제는 - 그간 소유분산이 주장되어 왔지만 - 전적으로 보장하고, 대신에 후자인 계열기업의 소유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3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44.1%이다. 그중 대주주와 그 혈족의 지분율은 10%미만인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5대재벌의 2백57개 계열사 가운데 78.2%인 2백1개사에 재벌총수의 개인주식이 전

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내부지분율중 총수 개인과 그 혈족 그리고 임직원 명의의 지분을 포함하여도 그 지분은 현재 7.9%밖에 되지 않는다. 10%도 채 되지 않는 소유권으로 100%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반면에 책임은 7.9%도 지지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재벌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재벌체제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피하고 현상적 문제에만 집착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언론보도는 이런 점에서 지난 일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재벌개혁의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재벌개혁이 추진돼 온 지난 일년간 역설적으로 10대 재벌의 소유집중은 더욱 강화되어 작년 1월 대비 내부지분율이 5.24% 더 높아졌다. 그 주된 원인은 계열사 순환출자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을 창출하여 실질적인 자본투입에 소유지분도 강화하고 부채비율도 낮추는 효과를 재벌총수에게 안겨준 셈이다.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허점이 악용된 측면이 강하다.

기업이 많은 수익을 남겨 이를 가지고 투자목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이 의 영
 Konkuk대학 교수

없다. 그러나 자신도 부실하여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기업을 지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는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목적의 출자와 지배목적의 출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신 시장원리에 의해 지배목적의 출자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일정규모이 상인 기업의 계열기업에의 출자를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직접상호출자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해약을 가지는 순환형 간접상호출자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순환출자지분에 대한 의견결의 제한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일인지배하의 선단식 재벌체제는 독립경영·책임경영이 실현되는 대기업체제로 탈바꿈해야 한다.

다시 생일을 맞는 동국인의 각오 **사설**

지난 주로 우리의 모교 동국은 또 하나의 나이테를 더하게 되었다. 개교기념식장에서 10년, 20년 혹은 30년 근속상을 받아든 분들의 주름 잡힌 얼굴을 바라보면 저절로 학교발전을 위한 그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드넓고 깨끗한 상록원 식당에서 벌어진 기념연회에서는 교수·학생·직원 모두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가득 차려진 음식을 남김없이 비워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어서 개교 이래 처음인 '공직자 동문 모교방문의 날' 행사도 성대하게 치러졌다. 대개 60년대에 모교를 떠나 여러 분야 공직에서 사회활동을 하고계신 그분들은 동국출신 공직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서로 놀라셨다. 또 지난 30여년간 우리 동국이 이룩한 양적·질적 발전상 보고에 매우 뿌듯해 하시는 듯 했다. 아마도 6월초로 예정돼 있는 '교직원동문 모교방문의 날' 행사에도 흐뭇한 감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간의 성취에 기뻐하고 자족해도 될 만큼 세상이 화평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 대학도 하나의 조직이라 볼 때, 모든 조직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고 발전하려면 다음 두가지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내부의 문제로서, 잠재적인 성원들에게 매력있게 보여져 지속적인 충원을 이루어 내고 구성원들간의 통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외부의 문제로서, 끊임 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경쟁하는 여러 유사조직들보다 더 잘 적응하면서 대외적으로 표방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문제이다.

대학정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학적 요인 때문에 지원자는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1학년도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지원자는 정원(73만여명)보다 약 1만명이 부족한 72만명이 될 것이며,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다. 게다가 2000학년도부터 시작될 대학시장개방으로 생겨 날 외국대학 국내분교의 정원과 경제난에 따른 지원자감소를 감안하면 현재 일부대학에서 겪고 있는 정원미달·도산상황에서 동국이 예외가 되리란 보장은 없는 것이다. 조직내부 구성원들 간의 통합측면도 단일한 낙관적 기대는 금물이다. 지난해 조직의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며 대학발전의 내실을 다지 못한 것과 이번의 교육개혁우수대학선정에 실패한 것은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겨우 개교 40 혹은 50주년인 몇몇 대학들보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도 심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대학외부의 상황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교육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원을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두뇌한국21(Brain Korea21)'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정 기본요건에 비추어 볼 때 이과·공과학문 중심의 첨단분야는 물론이고, 우리의 건학이념과 특성화 방향에 걸맞는 '불교를 중심으로하는 한국학 연구중심대학원'에 선정되려 해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각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든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동국인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고무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실천을 하나 하나 행하는 것이라는데 이견이 있을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이를 가로 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을 하나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한국인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이중적 윤리의식구조의 문제이다. 즉 책임을 지거나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때는 '나(우리) 하나만은 제외해 놓고' '너(희)들만' 해야 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이익을 함양할 때는 '나(우리)부터' 찾아먹어야 하고 '너(희)들' 어찌되건 상관없다는, '대내(對內) 도덕' 다르고 '대외(對外) 도덕'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현실을 어떻게 슬기롭게 타파해 나갈 수 있는나의 문제이다.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냉혹하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현실은 더욱 비정하다. 조직 전체의 파편화 현상을 막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중적 윤리의식을 타파하는데 우리 동국인들이 앞장 서서, '민족의 동국대학', '세계의 동국대학'으로 옹비하기 위한 마음을 가다듬고, 나부터 앞장서서 소리(小聲)·소아(小我)를 버리고 진정한 동국 발전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모으고 쌓아가야 할 것이다.

민중들, 이렇게는 못살겠다

“민중 생존권을 보장하라”

생존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선결과제

최근 민중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을 막론하고 모두가 더 이상은 못살겠다고 입을 모아 호소하고 있다.

IMF이후 정부는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국민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고통분담론을 주장해왔다. 그러한 논리에 민중들은 허리를 졸라매왔으나 이제는 그 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른 것이다.

실업자 2백만 시대. 전체 노동인구 2천만 중에 실업자가 10%에 달한다는 것은 민중의 생존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더구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계속되고 있어 새로운 실업자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위협은 더욱 엄청난 것이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농가부채에 짓눌려 울분을 토하고 있으며, 도시빈민들 또한 생존권과 주거권 확보를 위한 피맺힌 요구를 하고 있다.

실제로 60여만명의 조합원이 모인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반대를 골자로한 생존권

요구를 계속해왔다. 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처음에는 노사정위원회내에서 대화를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정리해고가 계속해서 진행되자 지난 3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농민들도 작년 9월15일 보라매공원에서 농민대회를 갖고 '농가부채 해결'을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조짐조차 없자 지난 4월24일 농민들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다시금 그들의 급박한 상황을 알리었다. 도시 빈민들은 지난 4월22일 서울역에 모여 생존권과 주거권 실현 투쟁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다 조직화된 전국빈민연합을 출범시켰다.

이러한 민중들의 요구사항은 하나같이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들이다. 내가 남보다 좀 잘살아보자고 혹은 편해보자는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대로는 살수가 없기에 생존권투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움직임에 대한 여론의 시각은 곱지 않다. 이는 기성언론들이 주역이 되어 조성한 여론이기 때문



이다. 그들은 민중들의 움직임에 대해 현상만을 주로 보도했고, 이들의 요구사항과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해왔다.

그래서 '모두가 힘든데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도망가고,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실점에서 모두가 팔팔 뭉쳐 난국을 극복해나가야 함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이기에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이대로는 못살겠으니 제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생존권에 대한

보장 요구는 다같이 참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뒤로 미뤄질 수 없는 것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알림
이번호(1272호)부터 만평의 필자가 최학(미술3)에서 박재우(구성·문철3)·만화얼(그림)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부주관 심규박	편집국장 박상관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편집장 김미경		하이텔·나우누리 ID dgpress 천리안 ID dgu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8
		팩스 (0561)770-2057

작가 이문열 인터뷰

인간 이문열을 만나니... 어눌한 말투에 친근함이 가득



'새하곡',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선택', '신의 아들', '변경' 등의 소설을 쓴 작가. 그의 몇몇 소설 제목들을 열거하면 누구나 이문열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친숙해져 있다. 이처럼 70년대말 등단 이후, 현재까지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온 그는 어느 작가보다 대중들의 뇌리에 기억되는 존재다.

반면 그에게 쏟아지는 찬사 못지 않게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 이문열씨의 부친이 좌익사상을 가졌다는 태생적 이유로 평론가들은 '비평'이 아니라 혹독한 '검열'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평론가들은 그의 작품을 '낭만적 상상력', '전망결여', '민중에 대한 불신', '과거회귀의 의지', '능숙한 이야기 솜씨' 등으로 평한다. 이렇게 치열한 찬반이 곧 소설가 이문열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일 게다.

따라서 본지는 현재 한국문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를 만나 그의 작품 세계와 생각에 대해 들어보고, 그의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 약력을 보니 어릴적 이사와 전학을 수없이 다녔는데 이유는?

=전체적으로 나의 시대 즉 70-80년대는 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없던 시기였다.

집안의 특수한 이유(부친의 월북 및 좌익사상가)로 인해 한곳에 머무르기 어려웠다. 당시 우리 가족은 연좌제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었고, 경찰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소리없이 이사를 자주 다녀야 했다. 몰래 이사를 하면 우리가족은 경찰이 우리를 찾는 그 시간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를 자주해야만 했고, 어머니는 무지비한 제재의 공포에 많이 떠셨다.

- 홀어머니 재작년에 작고하셨는데 이문열씨는 어머니와 많은 고난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 느낌이 남다른 것 같다.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그 다음 죽을 세대인 나의 세대를 생각해 봤다. 과거에는 3년동안 묘를 지켰는데 요즘은 어려울 것 같고, 현대에는 6개월정도 휴가를 주어서 나이가 든 중년기의 사람들이 인생과 삶을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모친께서 작고하셨을 때 세계와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기에 이런 생각이 해보게 됐다. 슬픔이란 모든 아들이 그렇듯이 인류적인 면에서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다.

- 현재도 당시 겪었던 모든 시련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가?

=혹자는 아직도 내가 아버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나이 오십인데 그렇지 않다. 남자라면 자신의 아버지를 극복하려는 본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의 삶과 연관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친의 영향이 없을 수야 있겠는가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

- 북한에서 부친이 편지를 보냈는데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아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이라고 세간에 널리 알려진 바 있었는데, 별 문제는 없었는가? 또, 한편으로 편지도 받았는데 보고 싶지는 않은가?

=아버지의 편지를 공개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다. 이런 일로 큰 문제가 생기면 잡혀갈 사람도 수도 없을 것이다.

어쨌든 편지를 받았지만 사실 별 느낌이 없다. 아버지 얼굴조차 기억에서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정서차원에서 끈끈한 그 무엇인가도 느끼질 못했다.

하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은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은 있다.

- 86년 8월 '변경'을 쓰기위해 나는 작가가 됐다'고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는데 그 내용이 본인의 성장과정을 그린 자서전 형태의 소설이라고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말은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다. 이런 글을 정말 쓰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다. 소설의 내용을 보면 3명의 의식주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나와 나이도 같고 성장과정도 비슷한데 그 소설속 인물은 사실 나를 그린 것이다. 해방된 시기부터 근대까지 즉, 58년에서 72년사이가 주내용인데 60년대를 시대배경으로 한 내용이 가장 많다. 하지만 나는 80년대의 역사적 흐름

을 겪으면서 80년대의 뿌리를 정말 찾고 싶었다. 80년대의 역사가 당연한 것인가? 라는 의문과 80년대의 역사가 이변이나 돌출이 아니고 60-70년대에서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 그럼 한국 근대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60년대는 지식인의 탈주(어떤 체제에 길들여진 인물이 그 체제에 저항하는 것) 시대인 것 같다. 4. 19와 5. 18은 우리가 세운 체제의 저항, 어떤 체제에 대한 대량 저항이었다. 60년대 이후 농촌인구가 줄고 도시민들이 생겼다. 도시민들은 유통적이고, 사회의 힘으로 작동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바로 도시민과 지식인 탈주의 결합이 저항으로 나타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도시수공업자와 빈농이란 두 계급은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지 못했다. 그속에서 주변계급이 오히려 강화되고, 확고한 영향력을 가졌어야 했다.



- 흔히 이문열은 보수적이라고 말을 한다. 보수는 곧 고리타분과 시대에 대한 민족이라고 불수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급진을 싫어한다. 불안정한 현대의 문제점과 지적을 한편으로는 인정한다. 진보에 유행처럼 휩쓸려 행동하지 않았음을 하는게 나의 바램이다.

그리고 보수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편견으로 자리잡고 있는것 같다. 보수란 안주하는 태도가 아니다. 보수나 진보나 완전히 않은 현실 또는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내가 바라보는 보수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현재를 이루어낸 과거 사람들의 시간, 고민, 고환(苦患),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바보와 약당들이 이뤄낸 것이 아니라 옛사람들의 노고와 눈물이라는 것을 잊지않으려 할 뿐이다.

언젠가 프랑수아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네 나라들은 보수란 말을 들으면 어떤걸 떠올리는가?" 라고 물

으니 보수란 침착, 성실, 인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보수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세종대학교의 교수로 활동하다가 그만두게 된 이유는?

=84년부터 87년까지 3년동안 강단에 섰다. 강단에 서기전 대학에 대해 계획과 기대가 컸었는데 작가와 교수의 삶을 양립하기가 어려웠다. 이문열이란 작가는 사회적 이미지가 크기에 내가 강단에 서기가 부담스러웠고, 강의를 앞두고 강의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아 강단을 떠난 것이다.

- 비평가들은 이문열의 작품내용을 비판할 때 비민주적이라고 말을 한다.

그 이유는 이야기 구조가 아무 생각없이 흔들리는 민중을 두고 대립되는 소수집단간의 삼각관계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작품결말이 교묘한 이중성을 띠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한테 민중이 많이 속는 건 사실이다. 민중이 정교하게 세상을 작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적다. 하지만 민중의 힘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민중들이 갖고 있는 생명력의 본능, 그들의 선택이 대부분 옳기 때문이다.

작품의 이중성이란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작품중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소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소설속 엄석대는 권력이나 정치인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꼭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은 그 소설을 읽고 "나치와 지식인을 상하게 섬뜩했다"고 나에게 말했다는데 이는 그 내용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예가 될 것이다. 작품이 이중성을 띠는 것은 답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답을 두 개로 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소설내용의 평가는 독자가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작가가 교훈자나 스승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대는 무한정 지식과 정보가 넘쳐 흐르는데 작가가 교훈자처럼 이런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사람의 아들'을 내가 썼지만, 솔직히 난 신화에 대해 신학자보다는 무식하지만 소설을 쓸 수 있었다. 정확한 기준을 작가가 갖기가 어렵거나 어떤 길을 가라고 정해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 -본인의 작품중 '선택'을 두고 가장 많이 여성단체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어떤 사립은 '주부 참녀론'을 언급하는등 사회적 공방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점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이렇게 여성단체들이 이 소설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당시 활발했던 페미니즘 붐에 나를 끌어들이는 계기를 제공했다. 페미니스트들은 나를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다.

이는 선진국의 여성운동을 뒤따라가는 입장에 있는 한국에서 더욱 격렬한 것 같다.

한번은 해외동포 여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적이 있는데, 그들은 지적이고, 현대성도 가졌었다. 한 여자는 "왜 한국에서는 소설을 두고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나한테 반문하기도 했다. 여성운동도 많이 변했으면 한다.

-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부악문원인데 꼭 조선시대 도산서원을 빌붙게 한다. 서재에 있는 칼리시진은 도산서원이 아닌가?

=맞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백평, 강당 2개, 숙사 15곳, 장서 1만 5천여권등을 갖추었다. 매년 5명을 선발해 3년동안 숙식제공과 교육을 하며, 주로 한문과 영어를 가르친다. 부악문원이란 이름은 건물이 들어서신 뒷동산의 옛명칭인 부아악에서 따왔다. 한편으로는 이곳이 도산서원처럼 되는게 소원이다. 아마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같은 존재일 게다.

도산서원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구보다 퇴계 이황 자신이라고 하는데 나 또한 여기서 창작 집념을 불태우며 공부하고 싶다.

지극히 인간적인 작가 이문열 소설가 이문열을 만나서 약속을 끝내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오후 3시에 전화를 걸

었다. 하지만 이문열씨의 부인은 "어제 저녁 술을 많이 먹어 아직 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깨우면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출발을 결심했다. 경기도 이천행 버스를 탄 나는 한국문단의 대표적 작가를 만난다는 생각에 많이 긴장해 있었다. 부악문원에 도착해 그 규모를 보니 실로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그러나 토요일이라 부악문원 문하생이 많이 없어 처음에는 쓸렁함마저 감동했다.

하지만 하나 둘씩 사람이 모이고 식사를 같이 하는 동안 그의 말투에서 웬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약간은 영성해 보이는 듯한 말투에서 옆집 아저씨같은 푸근함이 전해졌다.

식사후 텔레비전을 보며 부악문원 문하생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코미디 프로그램을 함께 보며 웃는 모습을 보니 다정함을 느꼈다. 담배를 피우다 부인이 오자 손등으로 담배를 숨기더니만 툭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안들었다 안들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작가 이문열에 대한 선입견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인터뷰를 할 때에는 긴장된 모습을 잃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런 느낌은 그의 아들한테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남 1녀를 둔 이문열씨의 장남에게 아버지한테 불만은 없느냐라는 질문은 아들은 "말을 꺼려하면서도 완벽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부자관계는 마치 친구사이처럼 보였다.

'아버지 콤플렉스', '보수주의자', '화려한(?) 학력' 그러한 것들은 이미 벌써 그의 이름앞에 붙여져 있다. 그러나 '올고그림', '종교 나뭇'의 이분화, 또는 선입견으로 가르는 이분법의 문제점을 오늘날 지적 만남을 가졌던 이문열 작가의 경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

박양우기자 dg19711437@mail.dongguk.ac.kr



'성폭력' 대학도 예외 아니다

성폭력근절 학칙 제정 움직임

학내 성폭력! 그동안 '쉬쉬'해 오던 것이 경주캠 한 여학생 어머니의 고소로 불거져 나왔다.

현재 경주캠 총여학생회는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 주고자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대자보를 적극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경주캠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근절을 학칙제정까지 고려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주캠의 소식을 들은 서울캠 총여학생회에서도 미약하지만 통신에 글을 올려 홍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당장 다음주가 대동제 기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은 어렵지만 대동제가 끝나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을 목표로 거리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거리전을 통해 성폭력의 개념과 해

결방안등을 설명하고 사진 및 설치물을 전시해 성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 동아내 현황을 알릴 예정이다.

앞으로 총여학생회에서는 2학기에 세미나를 개최해 좀더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하고 이런 일들을 계기로 성폭력근절 학칙제정을 이룰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고대·성균관대 등 여러 대학은 성폭력근절 학칙을 제정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학교도 더 이상 성폭력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비록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발생한 사건에 대해 문제해결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칙은 벌을 주는 목적이라기 보다 교화의 목적으로 재교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달하나 천강에 생명의 가치

드디어 5월이다. 5월은 적당한 기운을 동반한 화창한 날씨가 많은 달이다. 그래서 나는 매년 이 달을 무척 기다린다. 새로이 피어나는 갖가지 색상의 꽃들과 연두색의 새싹들은 나의 마음을 화려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기 때문인지, 생명이라는 단어가 5월에 더 자주 떠오른다.

생명은 고귀하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은, 특히 인간의 생명은, 무한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의사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할 때 생명에 무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말이 아니고, 각자가 본인의 생명에 무한의 가치를 두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다. 자신의 생명에 무한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유한의 이

익을 위하여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누구나 비행기를 타면서 그 비행기의 추락가능성이 0이라고, 즉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 가능성이 아주 작을 것이기 때문에 타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생명에 무한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아무리 확률이 작더라도 0이 아닌 이상, 잃어버리는 것의 기대값이 무한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탑으로써 얻는 유한의 이익을 위하여 비행기를 타지는 않을 것이다.

생명하면 일어나는 또 하나의 단상은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생명공학에 관한 것이다. 생명체를 자연이 준 기술 이외의 방법으로 단

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자 이를 복제라고 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 기술이 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난자라는 특수세포에 정자라는 특수세포가 결합하여 생명이 탄생되지 않고, 일반 세포를 이용하여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일 뿐인데, 이를 복제라고 이름 붙여서 마치 원 생명체와 생각까지도 같은 복제품이 탄생된 것이 양, 윤리적 혹은 철학적 논쟁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나는 생명 공학에 관하여 잘 모른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생명공학에 의하여 태어난 생명도 자연적 방법에 의하여 태어난 생명과 태어난 후부터는 같다는 사실이다. 그 생명을 같이 취급하면 그만이지 않는가?



송병호
경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제3회 대학영화축제

실험정신·개성 어우러진 축제의 장

예심 없애고 비경쟁으로 치러져 ... 심의 문제로 '삐걱' 대기도



대학로 딸기소극장에서 열렸다. 순수 아마추어 대학영화인들이 '끼' 있는 작품으로 그들의 실험정신과 개성을 한껏 표출한

“'못' 찍어도 되나요?” 99대학영화 축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영화를 사랑하는 대학인들의 한마당 잔치인 '제3회 대학영화축제'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자리가 된 이번 대학영화축제는 총 5개부문 43편의 작품이 상영되었다. 여기에 본교 서울캠 영화동아리 '디딤들'도 '힘'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영화제는 종전과 달리 '비경쟁영화제'로 치러졌다. 주최측의 이러한 결정은 대학영화계 간 경쟁을 그만두고 '축제'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것. 또한 예심제도를 없애 더 많은 대학영화계가 그들의 작품을 상영할 수 있게 했다. 행사 마지막날 뒷풀이자리인 '파워 베이비'의 밤은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이 자리에서 관객들은 영화제와 어우러져 영화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며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제3회 대학영화축제 역시 준비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준비초기 후원사

가 적어 '돈'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또한 처음으로 대학밖에서 영화제가 치러지다보니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심의라는 '딴지'를 건 것이다. 이에 "모든 형태의 심의를 거부한다"라는 대학영화계의 입장과 원만한 행사진행을 바라는 주최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결국 이번 영화제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영됐지만 이화여대 영화제 '누에'는 "영화제작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며 상영을 거부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영화제 자료관리팀장 신호철씨는 "이번 축제는 '우리가 만든 영화를 보여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학 영화가 대문화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대학 영화인들의 갈망을 대변했다.

<영> sadad@cakra.dongguk.ac.kr

디딤들 출품작 '힘'

근엄한 교수님이 불 일(?)을 봤는데, 휴지가 없다면? 본교 서울캠 영화 동아리 '디딤들'이 이러한 다소 황당한 내용을 기본으로 자체 제작한 '힘'을 '99대학영화축제'에 출품했다

'힘'의 주인공은 평소 자신의 지식이나 지위를 과시해 온 권위적인 교수이다. 그가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어 남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의 신념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화의 즐거이다.

13분 분량의 이번 영화에 든 비용은 약 4백만원. 이와 관련해 디딤들의 한 관계자는 "제작비가 충분치 않은 대학 영화 특성상 점심도 굶어가며 힘들게 작업했다"며 영화 제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대부분의 촬영이 화장실에서 진행돼 냄새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고

<린> izmir@cakra.dongguk.ac.kr



사진은 '힘'의 촬영장면

신작안내

인연서설(시집)



“꽃이 꽃을 향하여 피어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시 '인연서설'

중) "사람은 서로의 가슴에 가서 고이 죽어가는 일이다"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조선대 문창과 교수 문병란의 시집. 문병란은 70년대 이후 민중문화운동 재야 민주화운동에 관여, 문학과 현실의 조율을 통해 화염병 대신 시로써 저항한 시인이다. 시와 사회 출판사. 정가 5천원.

간첩 리철진(영화)



국내 영화사상 최초로 만나는 '휴먼코메디'. 슈퍼웨이 유전자를 훔치러 온 착하고 순박한 간첩 리철진을 통해 새롭고 의미깊은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흥행대작 '쉬리'와는 사뭇 다른 휴먼코메디이다. 데뷔작 '기막힌 사내들'과 연극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장진 감독의 두번째 영화다. 유오성, 박진희, 박인환 주연. 오는 15일 개봉.

매체비평

- 만화

한국만화 부흥

만화계는 이제 독자들에게 애국심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좋은 작품이 없어서 일본만화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작품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열혈강호'가 국내만화 최초로 2백만부에 육박하는 판매기록을 세우고 있다.

만화 출판업계는 요즘 한 무렵만화로 인해 슬럼프에 있다. 한 무렵만화가 단행본 판매부수 2백만부에 도전하고 있을 때

문이다. 화제의 주인공은 '열혈강호' (대원·전국진 글, 양재현 그림). 현재 18권까지 1백80만부의 판매고를 올려 유일하게 2백만부 이상을 판매한 '슬램덩크'와 '드래곤볼'의 기록에 다가서고 있다. 속된 말로 일본만화도 아닌 것이 이 정도의 역할을 보이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마치 만화계의 '슈리'를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영화계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결과는 아니다.

이미 우리만화계에는 1백~1백50만부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인기만화들이 그 영역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는데, '어쩔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저녁', '협객 붉은 매', '짱', '진짜 사나이' 등이 바로 밀리언셀러의 시대를 이미 열었던 작품들이며, '언플러그드 보이'는 2권 분량의 단편임에도 30만부를 넘어서는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양적인 성장 뒤에는 질적인 성장이 마련되어 있음은 물론인데, 이제 우리만화는 데생력이나 연출력, 그리고 소재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에서 이전과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며 여타 장르에 뒤지지 않는 독자적 예술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만화계가 전반적으로 탄탄대로를 걷는 것만은 아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여러 만화가와 만화지가 철폐를 맞았던 것이 바로 몇 해 전의 일임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만화는 아직도 '불량한 영역'인 것이다. 이런 평가를 보며 만화계 스스로도 반성할 것이 많은 사실이다. 실제로 아직도 우리 만화계엔 일본만화의 표절작업이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적 생산확대를 통해 상업적 이익만을 노리는 소위 공장식 제작도 우리만화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와 더불어 음란물이나 잔혹물만을 찾으며 좋은 작품을 외면하는 독자층도 큰 장애물임에 틀림없다.

지도 우리 만화계는 몇몇 대형히트작 외에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97년 이후로 만화계의 유통시장이 대량축소되어 팔리는 쪽이나 사라지는 쪽 모두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도서대여점의 출현은 영세한 만화산업계에 더욱 큰 충격이었다. 만화계는 단행본의 고급화 등을 통해 사서보는 책으로 거듭나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러나 만화계는 이제 독자들에게 애국심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우리에게 좋은 작품이 없어서 일본만화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작품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만화는 그렇게 꿈을 먹으며 자라나 있었다.

문화부

신지식인 바람이 분다

'신지식인' 아닌 '신지식인 운동' 비판

"생산성만 중시한 정책...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불과"

신지식인에 대한 학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제 2건국추진위원회 발족 후 법국인 의식개혁차원에서 신지식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정부의 '신지식인 운동'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신지식인운동은 주지하다시피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창조적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권장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지식인 1호로 공인된 심형래씨는 공익광고에 출연해 '신지식인이 되자'라고 외치고 있으며 여기저기 신지식인이라는 수식어가 불고 있다.

학계에서는 부가까지 창출과 생산성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개발독재 기간 근대화 초기의 초석을 놓았던 '산업전사형 인간'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신지식인론은 '성공지상주의' 논리이며 이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이다. 무한경쟁사회에서 이같은 성공논리는 노동

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김성기 '현대사상' 주간) "경제적 이익이나 실리라는 잣대로 학문과 지식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신지식인론 때문에 순수학문의 연구 방향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김상환 서울대학교수) "90년대는 성장주의의 일색의 근대화를 견제하고 심층 근대화에 나설 좋은 시점임에도 성장의 신화가 제시하는 가장 세련된 형태의 실용주의인 '신지식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점에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김영민 한일대학교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지식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판의 대상이 '신지식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신지식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있다는 것이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논란 하나

"신지식인의 개념을 언론이나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개념마저 모호한 실정입니다" 지난 4일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신지식인 운동 확산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본교 사회학과 김익기 교수가 던진 말이다.

신지식인 운동에 반대한다고 공소회의 자리에서도 밝힐 만큼 신지식인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그는 언론과 정부의 신지식인 낱말은 오히려 신지식인의 개념이 모호해지는데 한 몫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지식인'이 무의식 속에서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 달리 보편적인 지식인들은 '의식' 속에서 지식을 함유한다. 이에 김익기 교수는 "무의식속에서의 지식(신지식인), 의식 속에서의 지식(보편적 지식인) 등이 어떤 차이를 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 필요하다"

이든지 그 의미조차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펼치는 정부와 언론의 행태는 신지식인 운동을 확산시키기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단순한 개념만의 문제도 아니다.

"신지식인이 등장한 시기를 살펴보면 IMF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다. 하필 이런 때에 등장한 신지식인은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다"라는 김익기 교수의 말은 지난 역사의 산물인 '세계화'와 '국제화', '정보화' 같은 용어처럼 '신지식인' 또한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상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신지식인 운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단지 특정 신문사에서 주도적으로 신지식인을 다루며 내세우는 말일 뿐이며

신지식인 운동은 '제2의 건국 추진 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이 김익기 교수는 개혁 운동은 물론 필요하지만 신지식인운동이 그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신지식인에 대한 애매모호한 투자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익기(본교 사회학) 교수

yangkang@cakra.dongguk.ac.kr

논란 둘



김효근(이화여대 경영학) 교수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 신지식인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요즘 유행어처럼 변진 신지식인에 대해 불만이 많다. 그에 따르면 이는 애초 그가

"인간육구 충족시켜 가치 창조해야"

연구관바와 달리 정부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학계의 비판마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의 '신지식인'론에 따르면 신지식인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우리 국민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신지식인은 원래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지식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자아를 실현해가는 인류 즉, 호모 날리지언(Homo-Knowledgeian)'으로 정의됐다. 여기에서 지식의 종류를 '무언가를 아는 상태'와 '알의 대상'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하자면 첫째, 사물지(事物知), 둘째 사실지(事實知), 셋째 방법지(方法知)로 나뉜다.

신지식인 연구는 이중 세 번째 지식종류인 '방법지(方法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한다.

방법지란 인간이 느끼는 육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 방법지의 양과 질에 따라 각 분야의 가치창출 정도가 결정된다고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지식인의 필요조건으로 어떤 작업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방법지, 즉 당대 사람의 육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지식인 운동은 지나치게 경제성만을 강조. 원래 김효근 교수가 연구했던 바와 달리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한창 불붙고 있는 신지식인에 대한 논란은 '신지식인'이라는 이론이 아닌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일침(-針)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신지식인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제2건국운동의 하나로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지식인운동'에서 신지식인이란 한마디로 '학력에 상관없이 지식을 활용해 부가 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사람,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개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간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장을 개통, 판매량을 배나 늘린 공대출신 농민을 비롯 컴퓨터정밀지도 작성, 집배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집배원 등이 있다. 또한 이전 '용가리' 제작자라는 이름보다 '신지식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개그맨 심형래씨,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양도 열세살 나이에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이중 심형래씨는 신지식인 1호로 공인됐다.

문화부

메아리

쏘, 쏘, 쏘

▲ 정치권에 싸늘한 바람이 분지 오래다. 여·야가 민심을 등지고 저회들끼리 어울다우한지 오래다. 국민을 담보로 저회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한지 오래다. 국회에서는 '날치기' 권법을 쓰지 않나, 자신이 언제 '민주' 권법을 연마했는지 제 2의 민주화투쟁을 얘기하지 않나, 그런가하면 '너런 짓이라, 우린 해내고야 만다'라는 식으로 '장풍'을 쓰잘데없이 휘날리지 않

나... ▲ 지난 3일 국회본회의에서 공명여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신중 기립표결'에 부처 통과시켰다. 굳이 현장을 보지 않더라도 흔히 짐작할 수 있는 여·야 의원들의 주먹다짐 속에 이수라장이 됐을 국회 본회의 장. 그곳에서 기립한 국회의원들의 수를 셧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서로 다른 3개 안전에 대한 찬성, 반대의 수가 같

다는 것 또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러한 공명여당의 코미디쇼에 질세라 야당은 지난 6일 '제2의 민주화투쟁'을 선포했다. 현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 자신들이 나서지 않으면 결국 이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라고 염포를 놓은 것이다. 같은 날 공명여당은 정치개혁안 중 선거제도에 관한 단일안을 마련했다. 여차피 정치풍토를 쇠신하리라고는 기대도 않았지만 당리당략의

극대화로 얼룩진 이 협상안을 어느 세월에도 여·야가 논의할 것인가.

▲ 이 모든 것이 '6·3' 재선거를 앞둔 여·야의 신경전에서 비롯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재당, 삼당... 매선거 때마다 썰수도 없이 재연되는 쏘, 이전 원정히 '그때 그표를 아십니까'다. 배삼봉, 구봉서가 나오는 쏘는 재미있고, 텔레토비는 교육적이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이 하는 쏘

는 재미없고 애들 볼까 두려운 저질이다. 국민들 율화통 치밀게 하는... 사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정치쇼에 흥분하지 않는다. 관객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이 즈음해서 우리 국민들은 개를 두들겨판다는 뜻의 붕범기술인 타구붕범(打狗懲法)을 연마해 붕범하다.

김미경 편집장

pink@cakra.dongguk.ac.kr

작은소식

학교안에서

작은 상영회

'영화를 사랑 하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낯선 일본 영화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일간에 걸쳐 '러브레터', '4월이아기', '스왈로우테일'처럼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영화에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영화들을 상영할 예정이다.

오는 12일까지, 서울캠 학림관 소강당에서.

제 12회 소품전

서울캠 미술동아리 '그리고 그림'에서 개최하는 신입생 데뷔전

이번 행사는 '그리고 그림'의 제 13기 신입 회원들의 작품전으로 유희를 비롯하여 각종 혼합 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4일까지 학생회관 2층 연화관에서

학교밖에서

同行 990515

'꽃다지'와 '안치환과 자유'의 Big Joint Concert. 87년 6월 한창과 7.8.9월 노동한쟁에 더불어 성장해온 민중가요 1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최근 위축된 민중가요,진보가요 진영의 현재를 점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연이다.

두 사람의 명곡들을 콘서트로 진행해 관객과 가수 모두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15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문의 (02)326-3623

천년의 소리를 찾아

중앙국악관악단이 어렵게 만 느껴졌던 전통 불교음악을 새롭게 시도한 공연.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편곡하여 대중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공연이 될 예정이다. 부처님의 번뇌와 구도,특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소리와 춤,그리고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14일 KBS홀과 15일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3층 대극장에서. 문의 (02) 891-2091

